

“이정재의 영화 열정 신뢰...투톱 언제든 OK”

이정재와 만나면 늘 영화 이야기 동반 주연, '헌트'를 통해 자신감 감독 데뷔작 '보호자', 운명 맡겨 영화배우로 살 수 있어 행운이죠

“다르면서도 비슷해 보이는 두 주인공, 저와 이정재 씨를 꼭 닮았죠.”

절친 이정재의 연출자 '헌트'에서 그와 함께 투톱으로 나선 정우성(50)이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다. 서로를 의심하고 대립하지만 확고한 지향점을 향해 내달리는 영화 속 두 안기부 요원은 “전혀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화”라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만나 30년의 우정을 쌓아온 이정재와 자신의 모습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개봉을 일주일 앞두고 3일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만난 그의 얼굴에는 영화에 대한 만족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영화 자체보다 “자신과 이정재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는 그는 시사회 이후 쏟아지는 호평에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더라”며 미소 지었다.

●“이정재와 함께 낯설 마시며 울기도”

정우성·이정재 동반 출연은 모든 영화감독이 꿈꿔 온 ‘꿈의 캐스팅’이다. 이정재가 ‘헌트’로 정우성을 캐스팅하기 이전에도 늘 두 사람에게 동반 출연 제의가 쏟아졌다. 이에 정우성은 “두 주인공 캐릭터가 멋져야 한다는 막연함만 쫓았었다”며 솔직하게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사실 ‘멋짐’이라는 것 자체가 허황된 것인데, 어릴 때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전 형식적인 멋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캐릭터의 내면적인 고민이 먼저죠. ‘헌트’라는 좋은 결과물을 내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같이 함



배우 정우성이 “함께하고 나니 더욱 자신감이 생긴다”며 이정재와 호흡을 맞춘 영화 ‘헌트’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께할 만한 작품이다 싶으면 당연히 할 거예요.”

이정재가 30년 동안 한결같이 보여준 “영화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그를 늘 믿을 수 있게 했다.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30년 동안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모험”할 수 있게 한 결정적 이유다.

“늘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가할 때는 둘이 자주 조조영화도 같이 보고 그랬어요. 극장서 조조로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같이 보고 낯설 먹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함께 울고 그랬죠.”

●“투스타 타이틀, 내 것이라 생각 안 해”

이정재 이어 정우성도 영화 ‘보호자’로 감독 데뷔를 앞뒀다. 9월 11일(한국 시각) 제47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한 뒤 가을 개봉한다. ‘헌트’와 비슷한 시기에 촬영을 마친 뒤 약 한 달 차이로 영화를 개봉하게 된 정우성은 “우리끼리 맞춰서 영화 개봉일을 정하는 건 아니다”며 웃었다. 그리고는 “‘헌트’와의 비교는 의식하지 않는다”며 “‘보호자’는 ‘보호자’의 운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4년 영화 ‘구미호’를 통해 데뷔해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를 넘어 영화 제작자와 연출자로 발을 넓히며 ‘영화인’으로 살고 있다. 그는 “영화를 사랑”하는 만큼 “영화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영화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건 제겐 행운이에요. 저의 청춘은 막연했고 불우했죠. 그러다 엄청난 행운으로 영화배우가 됐으니 영화 현장이 저에게 얼마나 값지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음이에요. ‘투스타’라 불러주시는 타이틀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적 없어요. 늘 저에게 올 다음 작품이 궁금할 뿐이죠.”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한산’ 일주일만에 300만 돌파 독도함·통영 시사회 입담 효과?

15일엔 영화 촬영지 여수 무대인사 나서

영화 ‘한산: 용의 출현’(한산)이 쏟아지는 호평 속에 개봉 일주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경쟁 대작들의 출연진들이 예능 콘텐츠 등에 출연하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던 것과 달리 지역 시사회 등을 개최하며 다른 홍보 없이도 이뤄낸 성과란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난세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는 한산대첩 430주년을 맞아 개봉 전 국군장병과 함께하는 특별 시사회를 가졌다. 지난달 20일 충남 계룡시 해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와 같은 달 22일 국내 최대 규모의 해군 함정인 독도함에 있어 진행된 시사회에는 700여 명의 육해공군 장병들이 참석했다. 시사회에 참석한 김한민 감독과 박해일·변요한 등 주연배우들은 “장병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의 기운을 듬뿍 받아 가길 바란다”며 입을 모았다.

김 감독과 배우들은 23일에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진행된 시사회에도 참석했다.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과 함께 한 시사회에는 600여 명의 통영 시민도 함께했다. 같은 날 밤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상영관에서 진행된 시사회에서도 3000여 명의 부산 시민과 만났다.

개봉 후 진행되는 무대인사도 남다르다. 김 감독과 배우들은 15일 전라좌수영의 본영이자 이번 영화의 촬영지였던 전라남도 여수에서 무대 인사를 가진다. 영화 촬영에 도움을 줬던 시민 200여명을 초대한다.

역사학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관련 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홍보 효과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한산’의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역사학자 심용환과 최태성은 각각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산’을 보기 전 보면 좋을 배경지식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고, 공개 일주일 만에 2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를 외에 역사 및 인문학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이순신과 한산대첩 영상을 공개해 입소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승미 기자

“자식처럼 키운 ‘부코페’, 10살이 돼 기뻐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BICF 이끌어 온 김준호·김대희

19일부터 열흘간 부산 일대 개최 “플랫폼 연결한 콘텐츠 마켓 구성 개그맨들 힘 합쳐 10년까지 왔다”

“웃음의 힘!”

국내 최대 코미디 축제인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BICF)이 올해 10주년을 맞는다. 2013년 8월 처음 열린 행사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부산 일대에서 개최한다. 각각 집행위원장과 이사를 맡아 1회부터 페스티벌을 이끌어온 개그맨 김준호와 김대희는 “1년만 더해보자고 했던 것이 10

년째 이어오고 있다. 감개무량하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1999년 KBS 14기 동기인 두 사람은 2013년 “개그맨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조운호, 홍인규 등 동료들을 모아 BICF를 만들었다. 이후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바쁜 일정 사이에도 10년째 섭외와 기업 협찬 등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김준호는 3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 코리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는 자식이 없어서 BICF를 애처럼 키웠다. 그런 의미로 ‘내 아이’가 10살이 돼 기쁘다”며 BICF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김대희도 “주변에서 10회까지만 버티면 계속 죽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그 말에 용기를 얻



김준호 집행위원장과 김대희 이사

어 여기까지 왔다”고 돌이켰다.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각종 위기에 행사를 멈추지 않았다. 김준호는 “수많은 개그맨이 웃음과 코미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힘을 합친 결과”라며 “노력 끝에 자그마한 천막 두 개를 펴놓고 열었던 축제가 부산 전역으로 규모를 키워내 뿌듯하다”고 말

했다.

감염병 사태를 지난 올해에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축제를 연다. 행사 기간 동안 김원훈·조진세·엄지윤 등이 뭉친 ‘웃박스’, 홍윤화·김민기·김영 등이 모인 ‘투깝쇼’ 팀 등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는 개그팀들이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공연도 펼친다. 2013년 페스티벌 최고상인 ‘웃음바다상’을 수상한 댄디맨(호주) 등 해외 공연 팀들도 다시 한국을 찾는다.

두 사람은 10주년을 “9년을 총망라하는 기회이자 새 도약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들은 “향후 극장·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과 개그맨들을 연결해 콘텐츠를 유통해 ‘콘텐츠 마켓’으로 페스티벌을 키워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미디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홍상수 감독 ‘탐’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초청

홍상수 감독의 28번째 장편영화 ‘탐’이 제47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이어 제70회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공식 경쟁부문에 초청됐다. 홍 감독은 2016년 ‘당신자신과 당신의 것’으로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인 은조개상을 수상했다. 2017년 ‘후’로 초청됐고 2020년 ‘도망친 여자’로 초청돼 특별언급상을 받았다. 하반기 개봉하는 ‘탐’은 홍 감독의 연인 김민희가 제작실장으로 참여했으며 권해효, 이혜영, 조운호, 박미소, 송선미 등이 출연했다.

하이브, 2분기 매출액 5122억·영업이익 883억

하이브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다. 하이브는 3일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122억 원과 883억 원(K-IFRS 연결 기준, 외부 감사인의 검토 완료되기 이전 가결산 수치)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은 83.8%, 영업이익은 215.3% 늘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3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59.3% 증가했다. 하이브는 빅히트뮤직, 빌리프랩, 플래디스엔터테인먼트, 쏘스뮤직, 어도어, KOZ 엔터테인먼트 등의 레이블에 소속 아티스트로는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프로미스나인, 르세라핌, 뉴진스, 지코 등이 있다.

한소희 ‘경성크리쳐’ 촬영 중 부상...촬영 중단

배우 한소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경성크리쳐’ 촬영 중 부상을 당해 촬영이 중단됐다. 3일 소속사 나인아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한소희는 이날 액션 장면을 소화하던 중 눈 주위에 부상을 입었다. 즉시 촬영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동해 응급처치를 받았다. 한소희와 박서준이 주연한 ‘경성크리쳐’는 1945년을 배경으로 괴물과 맞서는 두 청춘의 이야기를 그린 스릴러물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안나 측 “감독 동의 없이 축소 편집 vs 쿠팡 “제작 의도 달라 수정 요청했는데 무시”

‘안나’의 편집권 놓고 정면충돌 OTT가 창작자 권한 침해 우려

수지 주연 드라마 ‘안나’의 편집권을 둘러싸고 연출자 이주영 감독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가 정면충돌하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쿠팡플레이 측이 애초 8부작이었던 드라마를 이 감독의 동의 없이 6부작으로 편집해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힘을 키운 OTT가 창작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영 감독은 3일 쿠팡플레이가 일방적으로 ‘안나’를 편집해 “작품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시우의 송영훈 변호사는 이에 따라 이 감독이 쿠팡플레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안나’의 김정훈 편집감독도 “6월 24일 공개된 ‘안나’는 내가 감독과 밥을 지새우며 편집한 ‘안나’가 아니었다”면서 “창작자와 스태프의 노력을 배제한 채, 비밀리에 누군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플레이는 “당초 제작의

도와 크게 달라 이 감독에게 수정 요청을 했지만 (그)수개월간 거부했다”며 “제작사 콘텐츠팀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 권리에 의거해 원래의 제작의도와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쿠팡플레이의 입장을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는 시선이 커진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제작비용을 대고 IP(지식재산권)를 소유한 OTT의 권력화가 심화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가와 감독 등이 제작사를 매개로 OTT와 간접계약을 맺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이 같은 구조적 결함이 해결

되지 않으면 창작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이번 갈등이 별다른 규제 없이 힘을 키운 OTT를 견제할 기회가 될 것 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공숙 안동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이미 창작자의 인센티브 등 수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방송가 안팎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창작자의 저작권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을 계기로 작가와 감독이 편집권 등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계약 방식이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